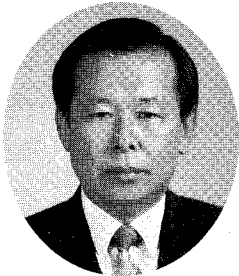


## 21세기 KCID 회원의 역할

KCID 고문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엄    태    영  
농지개발연구소 이사



영호남 지방의 가뭄이 지난 해 가을 부터 금년 4월 까지 계속되었으나, 그 피해정도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. 이는 광복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관개 · 배수분야의 기술인들이 이룩하여 놓은 관배수시설의 확충에 따른 성과와 합리적인 물관리의 혜택이 아닌가 생각된다.

우리나라의 년 강우량 1,274mm를 기준으로 한 수자원 총량은 1,267억톤으로 갈수년과 풍수년간의 강우편차가 매우 크고, 년 강우량의 2/3가 6~9월에 편중되며, 더욱이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많은 물자원량은 바다로 유거 또는 증발산 및 삼투 등으로 손실되고 불과 23%인 290억 톤만이 이용되는 실정이다. 따라서 우리나라가 항상 물이 깨끗하고 풍족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재인식해야 할 때이다.

현재, 인구의 급증, 근대산업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물수요가 급격이 증가하고, 자연환경으로서의 물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늘고 있어 점차 지역사회 또는 국가적으로도 물 문제가 큰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.

더욱이 올 6월 부터 본격적으로 개막된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멀지 않아 수원지역과 물수요 지역간의 물에 관한 분쟁으로 지역 이기주의가 팽배하게 되어, 점차 물수요 공급의 불균형에 따른 지역 · 지방자치 단체간 또는 물사용 목적간의 이해관계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.

따라서 우리나라의 한정된 수자원의 합리적인 개발 이용 및 보존 등 물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.

---

우리 관개배수위원회(KCID)는 관개배수, 홍수조절, 하천개수 및 환경보존 등 농업기반 조성사업과 농어촌 종합개발에 관한 국내외 선진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장려하고, 국제관개배수위원회(ICID)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기술 단체로서, 정부가 주관하는 농업기반 조성사업이나 농어촌종합개발사업에 관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국내외 과학기술 정보교환 등 각 분과위원회의 적극적인 연구 활동을 통한 능동적인 역할을 기대해 본다.

이에 KCID는 시대적인 상황 변화에 따른 도약적인 발전이 필요할 것이다. 이를 위해서는 대외적으로는 선진국의 관개배수위원회에 뒤지지 않는 국제관개배수위원회(ICID)에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, 더욱 활발한 국제활동과 더불어 다른 국가위원회와도 기술정보 교환 등 빈번한 접촉을 가져야 될 것이며, 안으로는 알찬 발간물(회지, 소식지, 기술서적 번역) 등이 나올 수 있도록 편집분과위원회의 각별한 수고와 노력, 각 기술분과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.

또한, KCID는 국제적인 감각과 풍부한 기술력의 집합체로서, 무한히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으로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, 창의력 개발과 회원간의 협조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.